

제20호

# 서구의회보

- ▶ 의장 인사말
- ▶ 5대 전반기 서구의회 의원 현황
- ▶ 회기별 안건목록
- ▶ 의원기고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서구의 얽힌 전설
- ▶ 지명유래
- ▶ 건강상식
- ▶ 문학마당(갯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http://assembly.seo.incheon.kr>



▲ 기획총무위원회



▲ 복지도시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Contents

제20호 서구의회보



## 의장 인사말 04

/ 서구의회 의장 고월출

## 5대 전반기 서구의회 의원 현황 06

## 회기별 안건목록 08

## 의원기고 09

/ 학교급식은 안정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 구 재 용 의원

/ 검단산업조성방향 / 송 영 우 의원

/ 서구의 홍물 건설폐기물 1,500만톤을 처리하자 / 전 원 기 의원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7

## 서구의 얽힌 전설 22

/ 천마산과 아기장수

## 지명유래 23

/ 서구의 옛이름 서곶은 석고조가 모월곶을 합쳐서 부른 이름이다

## 건강상식 24

/ 양파가 몸에 좋은 5가지 이유

## 문학마당(갯벌) 25



발행일 : 2007년 12월

발행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고월출

편 집 :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전 화 : 032)560-4507~8

FAX : 032)561-4336

#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백인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다사다난 했던 정해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 서구의회에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공직사회 여건속에서도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변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 서구가 동북아의 허브도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인운하건설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환경 및 각종 소음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상화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그 외에 수도권매립지순환매립 반대, 시설녹지사업 시부담금 조속 지원 등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연일 계속되는 유가 상승,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그리고 얼마전 최악의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구청장이 임기 4년중 2년 6개월을 남기고 총선에 출마하고자 사퇴하여 구정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서구는 지금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속에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가정오거리 뉴타운 조성사업, 인천시청 서구 이전 문제, 청라경제자유구역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북항 목재부두 건설 등 크고 굵직한 사업과 각종개발로 인한 소음공해와 분진 발생으로 인한 환경 문제, 그 동안 일구어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민생과 지역경제의 문제 등 여러 현안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

## 8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집단·개인이기주의를 떠나 주민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화합과 양보,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추진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투철한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으로 지방자치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반드시 미래의 밝은 서구·행복한 서구가 머지 않아 우리들의 눈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구청장의 사퇴로 많이 놀라시고 걱정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표로 구청장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지금까지의 진행사업과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집행부와 같이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므로 주민여러분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구청장의 공백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우리 의회가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바라면서 구민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의회의장 고 율 출

# 제5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고 월 출

(비례대표)

부 의 장



강 성 구

(신현원창,석남1,2,3동)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구 재 용

(검암경서동,연희동)

간 사



전 원 기

(검단1,2,3,4동)

위 원



홍 순 목

(검단1,2,3,4동)

위 원



전 재 안

(가정1,2,3동)

위 원



최 용 환

(신현원창,석남1,2,3동)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신현원창,석남1,2,3동)

간사



**홍순목**

(검단1,2,3,4동)

위원



**민태원**

(검암경서,연희동)

위원



**구재용**

(검암경서동,연희동)

위원



**박구**

(가정1,2,3동)

위원



**임동주**

(가좌1,2,3,4동)

##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민**

(검단1,2,3,4동)

간사



**최용환**

(신현원창,석남1,2,3동)

위원



**전원기**

(검단1,2,3,4동)

위원



**전재안**

(가정1,2,3동)

위원



**강성구**

(신현원창,석남1,2,3동)

위원



**안생준**

(가좌1,2,3,4동)

위원



**김영옥**

(비례대표)

# 회기별 안건목록

회기	상임	안건명	심의결과
제143회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응급의료센터 설치 건의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류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별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제1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기획총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원안가결	
제144회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석남어린이도서관 위탁에 따른 승인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급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따른 승인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회 기	상 임	안 건 명	심의결과
제145회	의회운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본회의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가결
	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가결
	본회의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반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가결
	의회운영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원안가결
	운영기획복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가결
	기획.복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수정안가결
	기획.복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가결
	본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가결
제146회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제정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안	수정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가결
	의회운영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제1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학교급식은 안정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구재용 의원

**국**가장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중요한 영양 공급의 통로이기 때문에 식단 짜기에서부터 원료조달 조리 가공되어 학생들이 먹기까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최근 확대되어가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전품목 최저가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다. 최저입찰 계약은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인 학교급식에서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급식사고의 위험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이 이윤 없이 어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최저가를 주장하는 기업은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승산 없는 경쟁이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급식에서는 많은 학교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보고되었고 이러한 식재료의 사용으로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 좋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아이들에게 결코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 인천에서만도 쇠고기의 부위를 속여 학교급식재료로 납품하다 발각되어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업체들이 몇 있었다.

점점 치열해지는 급식업체간의 경쟁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천지역 일선 학교들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료수급 능력 및 식자재 관리 실태나 가격경쟁력을 우선하기 보다는 시설규모를 주요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급식 업체의 외형 키우기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 이다보니 업체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출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장비를 설치하다보니 이자부담에 시달리면서 높은 고정비용 지출로 질 낮은 식재료가 사용되거나 가격인상으로 그 피해가 모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떠 넘겨지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농산물을 납품하는 A업체는 최근 모 학교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9,10월 두달간 농산물가의 급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전환 시 적정 마진 확보를 위해 구매상품의 질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적 우위를 가름하는 입찰 방식의 경우 학교급식의 수준저하로 연계될 것으로 생각되며, 정직하고 성실한 급식업체의 부실을 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최저가 입찰제 전환은 이러한 폐단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이 확실히 보장된 경우에 시행을 해야될 것이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보람된 마음으로 납품에 임할 때 우리사회가 신용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농산물 사용과 무상급식의 확대에 대해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검단산업 조성 방향



송영우 의원

**도** 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가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검단일반 지방산업단지(이하 검단산단)조성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도개공은 검단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종이 기계·장비등을 중심으로 9개 업종으로 제한 한다고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도개공은 올 연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제외된 기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기업체들은 현실에 맞는 분양방식 및 지자체가 아닌, 국가 정부차원의 개발로 변경,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검단산단은 검단신도시 및 검단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 부지 확보 및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지정 및 개발목적대로라면 우선 서구지역 기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서구지역에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체는 모두 5천 700여개 업체. 이 중 검단지역 소재 기업체는 2천 200여개 업체로써 전체 업체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다. (2006.제13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이를 토대로 검단지역 일대 제조업체 업종과 등록업체수를 감안하면 상당수 기업체가 입주(분양)를 못할 상황에 이를 게 뻔하다. 따라서 지역 업체의 업종별 분포율을 감안, 현재 서구일대와 산업단지 및 검단신도시 개발예정 지역내 활동중인 기존 기업체가 산단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가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산업구조를 토대로 한 형평성 있는 유치업종 선정과 배치계획(구성비율)재구성에 따른 의견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서구지역 기업체(5천700업체)의 경우 종사원 9명 이하 업체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10~19명의 종사자 규모의 업체가 900개 업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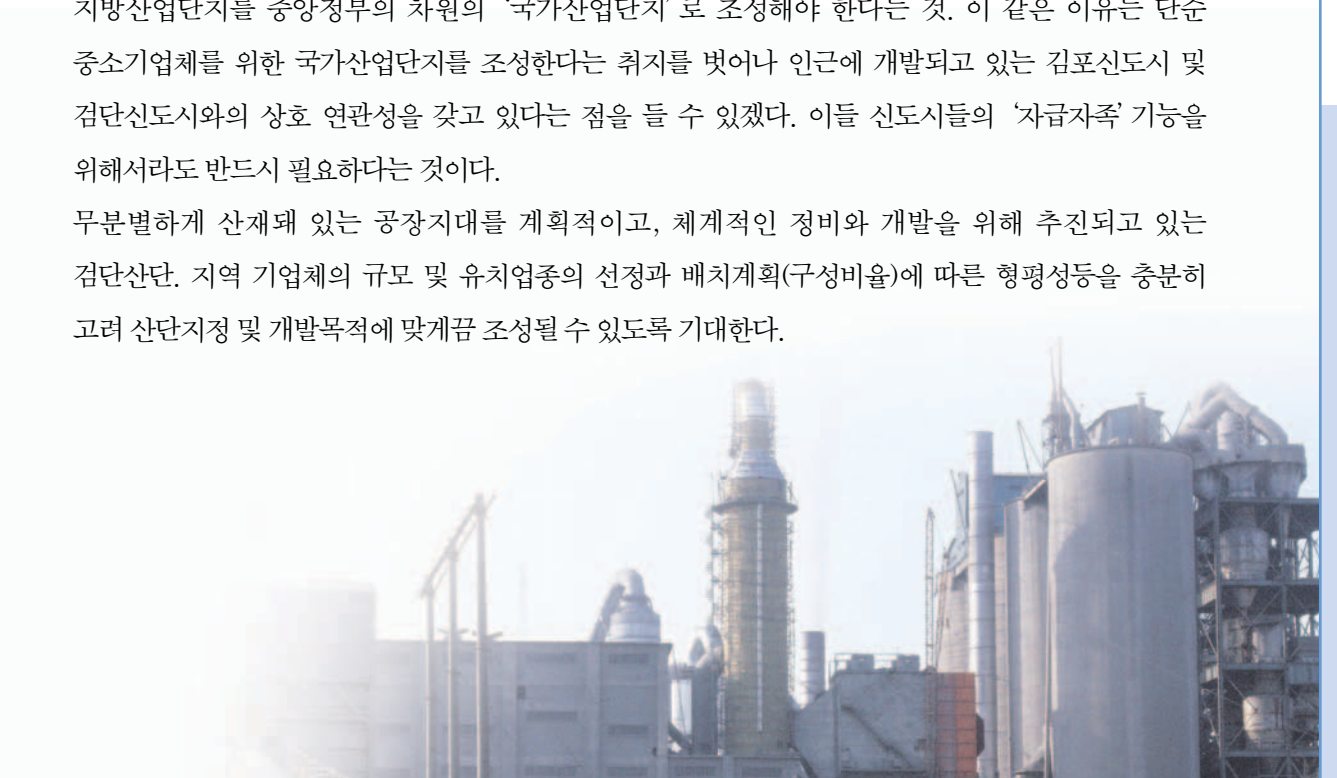
감안하면, 지역 업체의 규모와 능력이 아주 영세하다 하겠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규모적인 분양 방식을 채택할 경우 과연 얼마의 기업체들이 입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적인 분양방식이 아닌, 기업체의 규모와 능력을 충분히 감안한 자율적인 분양(임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분양가격을 들 수 있겠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보상가와 산단개발예정지역 현재 지가 및 예상되는 보상가액을 고려해 볼때 분양가격은 지역 기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일반분양' 이 아닌 '장기저리 임대방식' 분양실시를 내놓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1,2단계로 진행된다. 이처럼 소규모적인 '지방산업 단지의 조성' 을 배제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차원의 '국가산업단지' 로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기업체들의 한 목소리다.

김포지역의 '양촌지방산업단지' 와 '학운지방산업단지' 와의 삼각벨트를 구축, 이들 3개 지방산업단지를 중앙정부의 차원의 '국가산업단지' 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이유는 단순 중소기업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김포신도시 및 검단신도시와의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들 신도시들의 '자급자족' 기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검단산단. 지역 기업체의 규모 및 유치업종의 선정과 배치계획(구성비율)에 따른 형평성등을 충분히 고려 산단지정 및 개발목적에 맞게끔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 서구의 흉물 건설폐기물 1,500만톤을 처리하자



전 원기 의원

10여 년 동안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수도권 매립지 정문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들이 방치한 순환골재가 무려 약 1,500만톤 가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 골치 덩어리 흉물로 방치되어 서구 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5대 서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이것만은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집행부인 서구청에 대하여 구정질의, 행정사무 감사, 기타 업무보고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수차례 집중 추궁하여 "순환골재 대책 협의회"를 시민단체, 구의회, 환경단체, 관계공무원등과 함께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그동안 순환골재대책협의회에서 수차례 협의하고 토론을 하였으나 원론적인 얘기만 오갈뿐 서로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가 지난 11월 6일 회의에서는 본심을 들어냈다.

기본적인 원칙은 순환골재라고 칭하는 건설폐기물을 치우지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과거의 잘못과 책임 공방만을 논하면 해결책을 찾지 못하므로, 과거사는 접어두고 앞으로 처리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 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 토지주인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58.8%소유) 이사 신재봉님, (주) 반도자원 (약 7,000평중 3,000평 운영) 대표이사 이시영님, 순환골재협회 심우선님 등 직접 관련자들이 모두 참석 하였다.

상기 두 업체 반도자원과 순환골재협회는 2006년 말에 순환골재 불법 적치 및 2차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발조치와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으로 문제의 업체를 인수한 선의의 피해자 일수도 있다.

그러나 반도자원과 순환골재협회는 사업체 포괄 양도 양수 조건 즉 권리와 의무승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의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의 책임.
2. 허가받은 야적량을 초과한 불법 야적량의 책임.
3. 2차폐기물(쓰레기)을 사업장내에 불법 매립한 책임.

이러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에 야적된 건설폐기물이 필요에 따라 자기 자산인척 하다가 불리하면 본인들이 불법 야적한 것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토지주인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도 왕길동 64번지 일원, 문제의 땅을 매입시 불법 건설 폐기물이 야적된 사실을 인지하고 매입 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또한 순환골재를 처리하고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층은 토지주 이므로,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함은 재론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물론, 건설폐기물을 가공 처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혜택을 받은 쪽이 부담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사업체인 반도자원이나 순환골재협회는 더 이상 불법 야적하면서 배짱영업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물러서라는 것도 아니다.

큰 그림에서 서구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체인 반도자원과 순환골재협회와 대표적인 토지주 보람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상을 기대해 본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수도권매립지에 테마 파크를 조성하고 종합경기장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루 빨리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 서구에는 대형 토목공사가 산재되어 있고 성토, 복토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처가 대기 하고 있다. 즉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건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건설 등 각종 도로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환경 단체, 시민단체, 서구청, 서구의회, 그리고 서구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말고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기회에 순환골재 문제가 원만하게 잘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4. 석남·가좌 완충 녹지 사업은 조속히 재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3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토지보상금 및 공사비를 감안해서 미 지원된 시 부담금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서구 공촌동으로 이전 계획한 통합 예비군 훈련장 백지화 요구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방심하고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는 확정 발표 후 수습은 더더욱 어렵게 된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에서 이미 경험한 바를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6. 국·시책 사업을 챙기자. 물론 국·시책사업으로 우리 구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 소재한 토지의 사업시행에 주인 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청라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사업, 경인운하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각종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해결할시 도움이 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나 지역원로 등 유지분들과도 힘을 합쳐 우리 서구가 원하던 사업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7. 서구의 흉물로 남겨진 1,500만톤의 순환골재 처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협의체나 비공개 처리방안은 안 된다. 모든 정보를 서구민들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정책적인 의사 결정만이 해결 방안이다.

8. 2014년 아시안 게임 종합 경기장 유치 매진과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각 구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경기장 유치야말로 지금이 가장 적기다.

우리 서구는 지리적으로 인천의 중심에 있고 활용 가능한 부지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수도권 매립지 등 각종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9. 북항 고철과 잡화목재부두 조성에 따른 환경적 대처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각종 환경적으로 혐오시설이 많은 서구에 50년 앞을 보고 건설되는 북항과 배후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교통과 환경 문제가 예상되므로 친환경적 북항 및 배후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주거환경 으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

10. 마지막으로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이지만 제도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특히 돌봐야한다. 사회 양극화로 인하여 잘사는 계층은 잘 살지만 어려운 계층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 가장 등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복지 국가라 말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소외계층을 돕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서구가 주민행복 최고도시가 된다.

이외에도 많은 당면과제들이 있겠지만 이것만이라도 서구의회가 집행부인 서구청과 합심하여 해결해 나간다는데 서로간 적극 협력했으면 한다.

이러한 일들을 힘써 처리하고 노력한다는데 대하여 당리당략이나 개인 출세의 잣대로 보지 말고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포스코파워 방문  
(2007. 8. 3)



기업체와 경로당 자매결연사업  
(2007. 8. 29)



서구영어광장오픈  
(2007. 9. 3)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간담회  
(2007. 9. 3)

# PHOTO NEWS



**노인인적자원 관리센터 방문**  
(2007.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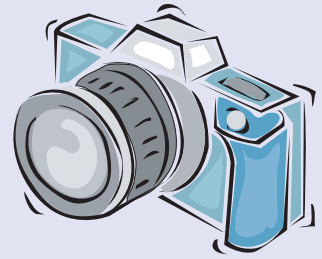
**거제통영 비교시찰**  
(2007. 9. 14)



**운동선수단방문**  
(2007. 9. 18)



**조례정비위원회**  
(2007. 10. 4)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2007. 10. 11)



**제8회 서구장애인 체육대회**  
(2007. 10. 12)



**케이비텍 현장방문**  
(2007. 10. 26)



**케이비텍 현장방문**  
(2007. 10. 26)

# PHOTO NEWS



**세어도어촌 체험마을 준공식**  
(2007. 1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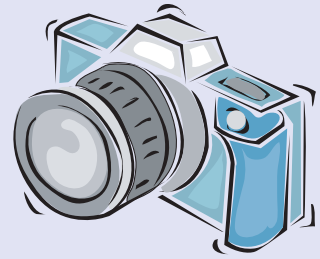
**2008년도 예산편성관련교육**  
(2007. 10. 29)



**문화생활작품 수료회 참석**  
(2007. 11. 21)



**당하초등학생 의회방문**  
(2007. 11. 28)



**노인문화센터개관식**  
(2007. 12. 28)



**145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07. 12. 11)



**인천시장 서구의회방문**  
(2007. 12. 28)



**SK현장방문**  
(2007. 12. 26)



## 천마산과 아기장수

천마산(天馬山)은 옛날 이 산 계곡에서 천마가 나왔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조선 초, 이 천마산 아래 가정동 이씨 문중에서 아기가 한 명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태어난 지 일주일만에 걸음을 걸었고 양어깨에 날개가 달려 천장을 날아다녔다고 한다.

아기장사의 부모는 관에서 이 사실을 알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옛날에는 아기장사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 반역을 할까봐 두려워하여 관에서는 감시와 단속을 엄중히 하였다. 그리고 후환이 두려워 아기장사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나면 득달같이 달려가 소문이 난 아기는 부모와 함께 죽였다. 아기장사의 부모는 고민 끝에 그 아기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기를 죽이려 하자 아기는 휙 날아 천장에 붙었다. 그러나 부모는 끝내 아기를 끌어내려 다듬이돌로 눌러 죽였다. 이때 갑자기 용마가 나타나 소리내어 울며 아기장사의 집을 빙빙 돌다가 아기장사의 목숨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천마산 중턱에는 바위에 말발자국이 나타나 있다. 이 말발자국은 옛날에 천마가 밟은 발자국이라고 하여 이산을 마제봉(馬蹄峯)이라 부르기도 한다.

울도를 개척한 조현중봉 조현은 김포태생이다. 그는 임진왜란때 의병장이 되어 충청도 옥천에서 왜병을 무찌르고 전공을 세웠으며 금산싸움에서 전사한 공신이다.

조현은 김포 출신으로 한때 통진부사를 지낸 터라 서구 연안의 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조현은 곧 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하루는 한양에 다녀오는 길에 총각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 총각의 성은 김씨였는데 조현은 그를 자기 집에 두고 글도 가르쳐 주고 바둑과 장기를 함께 두며 친자식처럼 보살피 주었다.

그 총각이 장가들 때가 되어 조현이 중매하여 마을 처녀와 결혼을 시켰다. 조현은 그의 재주를 보고 그 사람이 장사기술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장사 밑천을 반씩 대어 장사를 시키고자 하여 승낙하였다.

그런데 그 김씨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그 돈을 몽땅 다쓰고 나타났다. 김씨는 조현이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피난지를 개척하라고 울도에 보내었던 것이다. 김씨는 무인도인 울도의 산을 일구어 밭을 만들고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었던 것이다. 또 집을 지었는데 집의 벽을 찻쌀로 떡을 만들어 그것으로 벽을 만들었다고 한다. 난리가 일어났을 때 그 벽을 뜯어내어 끓이면 다시 떡이 되어 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현이 가족들은 물론 김씨네 가족 및 김씨의 장인가족들까지 모두 전란을 피하여 울도에서 지내 7년동안이나 끝났던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조현의 가족들은 울도에서 나왔고 김씨 가족만이 계속하여 살았다고 한다.

# 서구의 옛이름 서곶은 석고조가 모월곶을 합쳐서 부른 이름이다.

**백석동** 마을 뒷산인 한뫼산에 흰 돌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시천동** 시내가 시작된다는 뜻으로 계양산 서쪽에서 시작되는 큰 계곡을 끼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암동** 마을에 커다란 검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경서동** 옛 이름은 고잔이다. 계양산 줄기가 바다로 뻗어나간 곳의 안쪽에 있다는 ‘곶안’ 이 ‘고잔’ 으로 바뀐 것이다.

**연희동** 신라시대부터 여자들이 모여 비단을 짠 곳으로 원래 ‘여희(女媣)’ 라고 했는데 ‘여’ 를 ‘연’ 으로 바꾼 것이라 한다.

**공천동** 옛 이름은 고헌리(古縣里)다. 삼국시대 부평지역의 통치 중심지여서 붙임 이름이라 전한다. 지금의 공촌은 계양산 능선 아래에 자리잡은 마을 모양이 마치 공(公)자와 같다하여 붙인 이름이다.

**심곡동** 탁옥봉 밑 깊숙한 골짜기 안에 자리잡았다하여 깊이울이라 했는데 심곡(深谷)은 깊이울을 한자로 표시한 것이다

**가정동**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가정’ 이라는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한다.

**신현동** 옛 이름은 ‘새오개’ 다. 삼남의 세곡선이 원창동에 곡식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육로로 서울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새로 길을 닦으면서 고객길을 만들어 ‘새오개’ 라 했는데 이것이 새오개로 바뀐 것이다. 신현은 ‘새오개’ 의 한자음이다.

**석남동** 석곶의 남쪽에 있다는 뜻이다. 옛 마을은 번작(번지기), 고잔, 웃우물이다.

**번지기** 군대가 있어 돌아가며 번을 썼다.

**고 잔** 곶의 안쪽마을

**웃우물** 웃이 오른 사람이 와서 씻으면 낮은 우물이 있었다.

**원창동** 갯말, 포리등으로 불렸다. 바닷가에 부두가 있는 마을에 흔히 붙이는 이름이다. 1884년 이곳에 세곡선의 곡식을 보관하는 전조창을 세웠는데 원창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가좌동** 옛 이름은 가재울과 건지골이다. 이곳에 맑은 시내(가좌천)가 있어 가재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시내 아래 마을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나중에 물이 흘러들지 않아 마른 연못이 되어 ‘건지’ 라고 불렸다.

**검단동** 고어로 “검단”의 변형어로 신 또는 촌장의 마을이나 신에게 제사지내는 마을 이라는 뜻이다.

**마전동** 예전부터 삼을 많이 심어서 삼바지(삼밭이)라 했는데 마전은 이것의 한자음이다.

**당하동** 원당동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붙인 이름이다.

**금곡동** 옛이름은 쇧골이다. 예로부터 금, 은, 동을 채광해왔고 1950년대 말까지 철광을 캐다. 광물이 많이 매장되었다하여 붙인 이름이다.

**원당동** ‘으뜸되는 당(堂)이 있는 마을’ 이란 뜻이다.

**오류동** 오동나무와 수양버들이 많은 마을이란 뜻이다.

**불노동** 태양신을 고어로 ‘불’ 이라 했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불’ 이 된 것으로 보는데 천신제를 지냈다는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불로동의 제향산은 하늘에 제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대곡동** 가현산 큰 골짜기에 자리잡아 붙인 이름이다.

# 양파가 몸에 좋은 54가지 이유

- 1 양파는 혈액 속의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앤다. 그 결과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 2 양파는 혈관을 막는 혈전 형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혈전을 분해해서 없애버린다. 그 결과 혈전이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순환기장애(협심증, 심근경색, 뇌연화증, 뇌졸중 등)의 질병을 예방, 치료 한다.
- 3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섬유소 용해활성 작용과 지질 저하작용)으로 혈액의 점도(粘度)를 낮춰 끈적거리지 않고 흐르기 쉬우며 맑고 깨끗한 혈액으로 만든다. 그 결과 혈액 순환이 좋아 산소와 영양의 신체 공급이 잘 이루어진다.
- 4 양파는 혈압을 내리는 작용도 현저하다. 그 결과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하다.
- 5 양파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강화한다.
- 6 양파는 말초조직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HDL(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준다. 특히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심장병 환자는 자극이 강한 스트롱 계열의 생양파를 먹어야 효과가 있다. HDL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것 외에는 양파를 어떻게 요리하든지 괜찮다.
- 7 양파는 혈당을 저하시키는 작용도 뛰어나 당뇨병을 예방한다.
- 8 양파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을 치료한다.
- 9 양파는 당뇨병에 의해 생기는 2차적인 합병증인 동맥경화, 고혈압은 물론, 심근경색이나 신장병, 백내장 등을 예방, 치료한다.
- 10 양파는 콩팥의 기능을 증진시켜 신장병을 예방, 치료한다.
- 11 양파는 정상적인 혈당을 내리는 작용은 없고, 이상이 있는 높은 혈당치에만 작용하며 정상 혈당이 되면 신기하게도 작용을 멈춘다. 그 결과 합성약처럼 저혈당이나 신장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
- 12 양파는 간장의 해독작용을 강화시키는 그루타치온이 많다.
- 13 양파는 간장의 해독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임신중독, 약물중독, 알레르기 에도 좋다.
- 14 양파는 간장 속의 지질도 저하시켜 간장을 건강하고 강하게 하며, 신체의 노곤함을 없애주어 변비통이나 피로회복에도 좋다.
- 15 양파는 간장의 조절기능에도 관여한다.
- 16 양파는 알코올 때문에 많이 소모되는 비타민B1의 흡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주독(酒毒)을 중화하여 간장을 보호해 준다.
- 17 양파는 눈의 피로로 두통이 생겨 책을 오래 읽지 못하는 상태를 예방하고 치료한다.
- 18 양파는 눈의 각막이나 수정체가 흐려지는 백내장을 예방한다.
- 19 양파는 각막이나 수정체의 투명도가 나빠져 발생하는 각종 각막질환의 장애 회복에 매우 좋다.
- 20 양파는 세균 속의 단백질에 침투하여 살균·살충 효과를 낸다.
- 21 양파는 대장균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병원균을 죽인다. 그 때문에 소화 불량에도 좋다.
- 22 양파는 살균력이 뛰어나 항패혈증약이라고도 불리는데, 습진이나 무좀 등에도 아주 좋다. 또 양파의 살균작용은 익혀도 변함없다(마늘은 불안정함)
- 23 양파는 총치로 이가 아플 때, 갈아서 총치 안으로 넣어 두면 통증이 멎는다.
- 24 양파는 생 것을 3-8분간 씹으면 입 안이 완전한 멸균상태가 된다.
- 25 양파는 결핵이나 콜레라 등의 전염병을 예방, 치료에도 사용된다.
- 26 양파는 살균력과 해독력으로 육류의 부패를 막는다.
- 27 양파는 현대의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체내의 중금속을 해독, 분해시켜 체외로 배출시킨다.
- 28 양파는 칼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성장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에게 게 아주 좋다.
- 29 양파는 지방의 함량이 적으며 채소로서는 단백질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다이어트 에도 좋다.

- 30 양파는 칼슘과 철분의 함량이 많아 강장효과를 돕는 역할을 한다.
  - ▶ 칼슘은 인체내에서 신경의 진정작용이 있고 지구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무기질이며, 치아를 형성하고 혈액응고, 세포막의 강도유지, 근육의 수축 등 여러작용을 하는데 호소의 활성제로도 쓰인다. 발육기에는 뼈의 형성을 위해 많은 칼슘이 필요하며 노년기에는 체내에 칼슘이 부족하면 병이 생기기 쉬우므로 발육기와 노년기에 더욱 중요시 되는 영양소이다. 칼슘은 체내의 칼슘 공급량이 충분할 때는 뼈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혈액에서 필요할 때마다 뼈에서 용출되어 공급된다. 뼈는 칼슘의 저장고인데 뼈에서의 칼슘침착과 용출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혈액의 칼슘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칼슘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 것이다. 칼슘의 흡수부족은 설사를 할때,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때 일어나기 쉽고, 사지경련, 골연화증, 골다공증 등의 질병을 유발시킨다.
- 31 양파는 감기 퇴치 기능이 있는데, 생으로든, 익히든 끓이든지 해서 실제로 지난 수세기 동안 감기약으로 사용되었다.
- 32 양파는 목의 식도나 폐의 기도에 달라붙은 불필요한 점액들을 몸 밖으로 제거하는 거담작용을 한다. 그 때문에 해소전식에도 좋다.
- 33 양파는 코가 막힐 때, 즙을 내서 조금씩 마시면 트인다.
- 34 양파는 기도의 가래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침에도 좋다.
- 35 양파는 소화촉진, 변비, 생리불순, 유방종양, 대머리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 36 양파는 불면증에도 좋는데, 양파를 먹어도 되지만, 생양파를 썰어서 머리맡에 놓고 자도 효과가 있다.
- 37 양파는 아기들이 경풍을 일으킬 때, 양파를 잘라 입에다 대주면 씻은 듯 가라앉는다.
- 38 양파는 진정제나 신경안정제 역할도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긴장될 때 생양파를 먹으면 된다. 날양파의 매운맛과 향기가 연수에 작용하여 정신을 안정시킨다.
- 39 양파는 허약체질이나 신경쇠약에도 아주 좋아서 원기회복이 필요한 환자의 식으로 적당하다.
- 40 양파는 혈액을 정화하기 때문에 피부미용에 좋고 잔주름을 예방한다.
- 41 양파는 자궁수축에 의한 분만 촉진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임신부의 산고에도 좋다.
- 42 양파의 성분 중, 비타민 A는 정자의 생성에 필수이며, 비타민 B1는 성활동을 장악하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왕성하게 한다는 것이 밝혀져 남성들의 정력강장제로 탁월하다.
- 43 양파는 비타민(특히 비타민B1)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다른 채소, 과일과 섞어 먹으면 피부미용은 물론 스테미너에 더욱 좋다.
- 44 양파는 마늘과 함께 동식물체를 구성하는 중요 성분인 유지(油脂)의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부노화나 인체의 노화가 산화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양파가 장수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5 양파는 단것보다는 매운 스트롱 계열의 것에 약리효과가 뛰어난 유효성분이 많다고 밝혀졌다.
- 46 양파의 요리법은 매우 많은데, 어떠한 짜개와 반찬에도 향미료로 곁들일 수 있다.
- 47 양파는 지방의 산패를 막기 때문에, 사용한 튀기기름에 양파 몇 쪽을 튀겨내면 비린내가 감쪽같이 사라지며 오래 보관할 수 있다.
- 48 양파의 독특한 향과 자극적인 냄새는 육류나 생선요리의 비린내를 없애 주기 때문에 조미료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야채이다.
- 49 육류와 궁합이 잘 맞는다.
- 50 양파는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과일과도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
- 51 양파는 날것과, 굵거나 튀기거나 삶거나 말리거나 한 것과 그 약용효과에 있어서 하등 변화가 없다
- 52 양파의 뛰어난 점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 53 양파의 유효성분은 안정되어 있어서 장기간 보존을 해도 변화하지 않는다.
- 54 새로 이사한 집에 페인트 냄새 등 잡냄새가 날 때에도 생양파를 한 공간에 3-4개 생양파를 껍질을 벗겨서 칼로 열십과 가로 세로로 잘라서 방바닥 등에 신문지를 깔아 놓고서 양파를 널어 두면은 페인트나 잡 냄새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 갯 벌



심정은 갯벌문학회장

가족 동반 야유회로 모처럼 바닷가로 놀러간 일이 있다. 늘 바쁜 가운데 이렇게 짬을 내게 된 것만도 다행한 일이었다. 인천에 산다지만, 바다구경을 한다는 게 요즘 같아서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가족들 이랑 함께 오붓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건 말 할 것도 없다.

인천 앞 바다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널린 것들이 모두 섬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유도다. 인천공항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유명세를 타서, 여름철만 되면 외지에서 몰려드는 피서객으로 한창 북작거렸다. 해안선을 따라 널리 펼쳐 진 백사장과 인근에 우거진 해송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빛어낸 곳이다. 해안선을 돌아가면 해변 한쪽에는 갯벌이 널려 있다. 우리가 목적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싱싱한 회감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찌감치 선발대를 보내기로 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낚싯배를 타고 나갔던 선발대가 이미 돌아와 있던 터라,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연락을 받고는 부지런히 그곳을 행해 걸어갔다.

모래사장이 끝나는 곳에 갯벌이 시작되고 있었다. 발을 옮겨놓았으나 개흙이 의외로 단단해 보였다. 작은 게들이 드나들직한 갯구멍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여기도 벌써 맛이 간 것은 아닐까? 월미도 앞바다에서 발가벗고 해수욕을 즐기던 어린 시절이 새삼 떠오른다.

객교량을 타며 즐기던 망둥어 낚시. 채 그물로 몰이하던 꽃게 잡이. 갯바닥에 숨어 지내는 민챙이랑 조개랑은 늘 술래잡기 친구였다. 추억 속에 남겨진 그 친구들이 지금은 어디론가 감쪽같이 종적을 감추어버린 듯싶어 섭섭한 마음을 떨구지 못했다.

무심코 갯바위로 올라서려는데, 바위 한 쪽에 굴딱지가 잔뜩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이 생겨 주워든 잔들로 살그머니 깨보았다. 과연 생굴이 안에 들어있었다.

입안에 녹는 맛이 상큼하기만 했다. 둘러보니, 주위에 널린 갯바위마다 굴딱지가 가득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가던 길도 멈추고 삼삼오오 달려들어 너도나도 굴을 따느라 한동안 법석거렸다.

갯벌 위로 소슬한 바람이 불어왔다. 소금 끼가 어려웠긴 하나 바람은 아주 신선했다.

생기 넘치는 바람의 소매를 타고 갯벌은 살아 숨쉬는 것이다. 갯벌 따라 펼쳐나가는 우리의 마음 역시도 그렇게나 아늑하고 평화로운 것이었다. 자연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가 자연 속에 혼연일체가 될 때, 마음은 그렇게 동심이 되어 천연덕스럽게 자연과 동화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 자연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도 꿈은 존재하는 것이겠지. 역시 꿈의 원천은 무엇보다 원시 그대로의 자연일 수밖에 없다.

굴을 따는 재미로 정신이 나간 우리를 향해 빨리 모이라는 신호가 왔다. 우리는 한 아름씩 떠난 굴을 잔뜩 끌어안고 달려가느라 허둥거렸다. 정신없이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숨씨 좋은 친구가 도마 위에 갓 잡아온 생선을 올려놓고 횡감을 뜨느라 열심이다. 갯벌 한 쪽에 바윗돌로 대충 막아놓은 얇은 웅덩이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살아 퍼덕 거리고 있다.

낚시로 건져 올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나보다. 광어와 송어 등 수십 마리나 되었다. 광어 한 마리만 해도 3kg 이상은 죽히 나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컸다.

모인 식구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만한 양이었다.

떨어놓은 횡감에 모두들 군침을 삼키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회를 드는 자리에만 몰려있고, 자리를 깔 생각들은 없는 것이었다. 생존경쟁이 별 게 아니었다. 소주 한잔에 두꺼비 파리 훔듯 회를 떨어놓기 바빠들 만큼 아우성들이었다.

어느 정도 각자 배를 채우고 나서야 제 정신이 돌아오는지,



그때가 되어서야 자리를 펴기 위해 적당한 곳을 찾아 나섰다. 서너 잔 오기는 술잔에 기분마저 호탕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일까. 거듭되는 술잔은 주홍을 돋우며 갈수록 기고만장이다. 더군다나 시원한 바닷바람에 마음마저 상쾌하니 골치 아픈 일이라도 다 잊혀지고 말 것만 같다. 다 큰 사람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물 속을 덤벙거리며 물장난까지 쳐댄다. 밀물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해안선 가득 밀려드는 조수를 따라 चल랑거리며 옛 꿈이 살아나는 것 같다. 젊은 시절의 추억도 되살릴 겸 모처럼 데이트 기분을 내자며 아내와 단둘이 해안을 거닐었다.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낭만이였다. 손을 맞잡고 고즈넉한 마음이 되어 해안선을 따라 걸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밀물 따라 빈 강통이 함께 떠다니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깨진 소주병에 먹다 남은 과일 껍질, 그리고 갯벌 주변 곳곳에는 아무렇게나 버려져있는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먹을 때뿐이지, 먹고 나면 생각이 바뀌는 게 우리의 현실인가 보다. 먹는 것에는 아무리 죄가 없다곤 하지만, 자연을 즐기면서도 현실적인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 인간의 생리인 것만 같다. 버릴데가 없어 버리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설령 무인도라 할지라도 사람의 발이 닿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로였다. 비뚤어진 인간의 내면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이기주의적 발상임이 분명하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은 혼자 독차지하려는 놀부 근성에서 비롯된, 우리의 딱한 현실이다.

쓰레기들을 가져다 한 곳에 모아놓고 태웠다. 남은 재는 한데 모아 적당한 곳에 파묻었다. 우리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치워놓고자는 의도에서 합심한 결과였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모두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름다운 강산이 혼탁해진다는 게 가슴을 억누를 정도로 아파 왔던 것이다.

휴가철도 아니건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몰려와 있었다. 해변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산 주변에도 놀러 나온 인파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 주변에는 하나 같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행락객들이 행위만도 아니었다. 공항이나 그 주변이 완전히 개발되면, 그 여파로 인해 그나마 풍치 좋던 이곳마저도 오염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아무리 국제공항을 유치한 것이라 해도 생태계를 도외시하며 무분별하게 파헤쳐 놓고 다시 메우고 덮어놓는 일이야말로 근시안적인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인천 앞 바다는 물론, 대부도, 삼교천, 아산만, 남양만... 그리고 시화방조제에 이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까지 천혜의 자원이랄 수 있는 갯벌이 뿌리째 사라져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개척의 깃발 아래 벌어지는 환경변화에 이제 새들도 꿈을 접고 말겠지. 가까운 세월 안에 꿈도 희망마저도 모두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시대적 변천과 정이라고 짚고 넘어가기엔 그저 아쉬움만 가득 고여 올 뿐이다. 그것은 분명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을 몽땅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갯벌이 놓였던 자리에 조개와 게를 잡으며 낚시질을 즐기던 추억들. 갈매기와 노랑부리백로, 그리고 저어새와 도요새, 물떼새 등이 터를 잡았던 보금자리. 그 터전에 자리 잡힌 동심을 아예 잃어버릴까 벌써부터 가슴이 아려온다.

먼 훗날 우리들 가슴에 꽃 피울 한 토막 추억거리를 잃는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 아닌가.

용유도를 빠져나오면 인천공항을 거쳐 가게 된다.

역사적인 개항을 맞이한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그 자태를 새롭게 들이내고 있다. 하지만, 공항시설을 완비하고 수반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아직도 십여 년은 족히 걸려야 될 것 같다. 매립한 갯벌 위로 들어선 공항은 청사 등 건물만 일부가 들어섰을 뿐, 대부분이 황량한 벌판으로 남아있다.

활주로도 일부만 완성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공항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그 날까지 풍광 좋던 우리의 자연은 갈수록 그만큼 병이 들 건 뻔한 일이었다. 공항 동쪽에 위치한 여객 터미널을 우회하며 차는 신공항고 속도로를 빠져나갔다.

가끔은 늘어선 차량으로 시간이 지체되긴 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뛰놀고 돌아오는 길이라 모두들 흡족해하는 모습이였다.

그렇지만, 나는 앞서기는 차량에서 내뿜는 희끄무레한 연기에 끄슬린 듯 나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다.

그런 탓일까? 용유도를 떠나오면서도 가슴이 텅 비어지는 듯 허전해지는 건 무슨 이유에설까.



## 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바람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시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청원제도 및 진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원	진정
정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이 문서로 희망사항이나 바라는 바를 진술하는 것	진정인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의원에게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형태로 제출한 것
성립요건	-청원을 소개하는 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 제출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 첨부	-진정서에 진정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불수리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된 것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와 국가, 지방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연도에 2건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 기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문의는 서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60-5858)

## 투고 안내

서구의회에서는 “서구의회보”에 게재할 구민여러분의 뜻과 정성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나, 바라는 사항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분야**: 의회에 관한 제언, 주민논단, 시, 수필, 평론, 콩트 등
- **발행주기**: 1년 2회(2, 8월 25일)
- **분량**: 원고지 7~8매 내외
- **제출기한**: 매월발행 전월 말일(1월 31일, 7월 31일 ; 수시접수가능)
- **기타사항**: 보내는 분의 주소, 성명, 연락처 및 사진 1매
- **보내실곳**: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 서구 의회사무국(의정팀)  
☎ 560-5852 FAX 561-4336

## 의회방청 안내

서구의회는 구민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 ◎ 서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안내

서구의회에서는 항상 열린 의회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안내, 회의록 검색, 의정소식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료 조회 및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방청안내

서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방청을 원하시면 서구민이면 누구든지 절차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절차**: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 **방청신청**: 일반신청(개인) - 회의 개최일 의회사무국 방문  
단체신청(10인 이상) - 회의 개최 전일까지 공문 접수
- **방청문의**: 서구 의회사무국 의정팀(☎ 560-5852)

###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나 깃털행위
- 신문 기타 서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http://assembly.seo.incheon.kr>